

# “전일빌딩 이어 옛 전남도청 총탄 흔적 찾아라”

문체부 복원추진단 ‘탄흔 조사 용역’ 참가업체 선정 입찰

벽면 철근 계측도·외관 흔적도 등 3차원 지도 제작

1980년 당시 나무 6그루 금속탐지·3D스캔 작업 병행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옛 전남도청 총탄 흔적도 찾기로 했다. 한 때 국립과학사연 구원(이하 국과수)이 총탄 흔적 감정 불가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새로운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이하 복원단)에 따르면 복원단은 22일 옛 전남도청 건물의 탄흔을 조사하는 ‘1980년 5·18 당시 옛 전남도청에 대한 탄흔 조사용역’ 참가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한다.

복원단은 사업자가 선정되면 옛 전남도청 복원에 앞서 2억원을 들여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탄흔 조사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복원단은 우선, 탄흔 감정 불가 판단이 나온 점을 감안해 옛 전남도청 내·외부 보수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외관으로 드러나지 않은 탄흔을 발견하기 위한 첨단 과학적 기법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옛 전남도청 본관·회의실·별관, 경찰국 본관·민원실, 상무관 등 6개동에 대한 벽면 철근 계측도·외관 흔적도 등을 3차원 지도로 제작, 탄흔을 찾는 작업이 이뤄진다.

옛 전남도청의 경우 1980년 내·외부 보수, 전기배관,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된 만큼 이들 흔적을 3D 지도에 넣

어 탄흔인지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1980년부터 옛 전남도청 앞을 지켰던 나무 6그루의 탄흔도 조사한다. 복원단은 이를 위해 금속탐지 및 3D스캔 작업을 병행기로 했다. 탄흔 조사를 위해 5·18 민주화운동 기간 계엄군과 시민군 간 발생한 교전 상황도 변수에 집어넣어 탄흔 위치를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원단은 M16, M60, MG50 등 각종 화기별로 옛 전남도청 벽면에 남아있는 탄흔 샘플을 제공하고 성분조사와 다른 흔적들과의 비교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복원단은 용역 과정에서 탄흔으로 의심되는 경우 국립과학사연구원에 5·18당시 탄흔인지 여부에 대한 검증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단체 안팎에서는 전일빌딩에 이어 옛 전남도청 외벽과 내벽에서도 탄흔이 발견될지 문광부 복원단의 탄흔 조사 용역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앞서, 국과수는 지난 2016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측(ACC)의 총탄 흔적 감식 요청에 “옛 전남도청 본관 후면 외벽과 건물 내부 벽체의 경우 현 상태에서 총탄흔 감식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감정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지난 2015년, 건물 외벽을 페인트와 회반죽을 칠하고 내부를 단장하는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한 게 원인으로 꼽혔다. 다만, 국과수는 건물 앞쪽 우측벽에서 일상적인 손상 흔적과는 다른 형태의 손상 흔적이 발견됐다고 지적한 바 있어 향후 용역 과정에서 이같은 흔적의 원인이 확인될지 관심이사다.

김도형 복원추진단장은 “지난 2016년 국과수 조사는 일부 한정된 장소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면서 “이번 용역을 통해 도청 전 구역에 대한 비파괴검사 등 좀 더 발전된 최첨단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 탄흔을 찾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통 쪽 염색체험 21일 나주문화원 일대에서 열린 생생문화재 참가자들이 나주시 다시면 정관채 전수관에서 전통 쪽 염색체험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오늘 전두환 재판에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나올까

전씨측 신청 3명 증인 신문 진행 소환장 전달 안돼 출석 불투명

전두환(89)씨 재판을 앞두고 이희성(96) 전 계엄사령관이 법정에서 증인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22일 오후 2시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전씨측이 신청한 3명의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전씨 측은 이날 백성묵 전 203항공대 대장, 장사복 전 교사참모장, 이희성 전 육군 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예정이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군 지휘부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한 증인 신문 대상으로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이 올라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은 1980년 5월21일 새벽 4시30분께 국방부 장관실에 주영복 국방부장관, 노태우 수경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 차규현 육군사관학교장을 비롯해 전두환 등과 군 수뇌부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계엄군의 광주 외곽 배치 ▲자위권 발동 등이 논의됐었다.

하지만 최근까지 ‘수취인 불명’ 또는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이씨 등에 대한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전씨는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이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지용 기자 dok2000@kwangju.co.kr

## “기획사 귀책사유 없이 공연 취소 됐더라도 배상책임 계약서 내용 근거 2억 지급하라”

광주지법, 공연업체 일부 승소 판결

촛불시위 등 공연기획사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 공연이 취소됐더라도, 계약 내용을 들어 기획사가 2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기리)는 광주지역 공연이벤트기획회사인 A사가 공연기획·제작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에 2억원의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16년 6월, 개그 콤비 컵투가 출연하는 ‘크리스마스 공연’을 진행키로 B사와 1억 75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증도금·잔금까지 지급했다가 공연을 1주일 가량 남겨둔 같은 해 11월, 대규모 촛불집회로 인한 무관심으로 경제적 손실 등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들어 공연 일정 변경을 요청했고 B사가 동의하면서 공연은 연기됐다.

A사는 이후 2017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연기됐던 공연 진행과 관련된 조치를 요청했지만 B사가 ‘공연 취소 공지를 조치했다, 컵투 멤버 한 명의 공황장애로 인한 활동 중단으로 공연 진행협약이 중단 상태였고 재협의 예정’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

구하는 소송을 냈다. 컵투 멤버 중 한 명은 지난 2018년 4월, 공황장애로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재판부는 “A사의 일반적 통보로 공연을 취소하고 뒤처리를 한 것 뿐”이라는 B사 주장과 달리,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6년 11월, 공연이 연기됐을 당시 계약은 종료된 게 아니라 묵시적으로라도 추후에 시행키로 합의가 이뤄져 계약은 존속하게 됐고 이후 일정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B사는 공연 시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 A사가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2018년 7월 당시, 컵투 멤버 사정으로 공연 시행이 어렵게되면서 아티스트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된 것과 동일한 상태가 초래됐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회사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정들을 이유로 연기 또는 취소됐을 경우에도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계약서도 판단의 근거로 반영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아티스트의 사정, 사회·경제적 사정 등으로 공연이 연기 또는 취소됐을 경우 공연 계약금의 2배를 취소 후 1개월 내 원고에게 배상한다’는 규정이 적시됐다. 재판부는 여기에 ‘계약금(1억)의 배액’을 배상키로 한 점을 참작, 손해배상액을 결정했다.

/김지용 기자 dok2000@kwangju.co.kr

##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770원으로 올려야”

민중노총 요구안

전국민중노동조합총연맹(민중노총)이 2021년 최저 임금을 올려 최저임금(시급 8590원)보다 25.4% 인상된 1만77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1일 민중노총에 따르면 민중노총 집행부는 지난 18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내년

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요구안을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예측한 내년도 실제 생계비(일반 가정에서 실제 한 달에 지출한 금액)가 225만 7702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시급(월 209시간)을 계산하면 최저임금은 1만770원에 해당한다는 게 민중노총 측의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경찰, 광주 기초의원 비위행위 내사 착수

광주지역 기초의원들의 비위 행위(광주일보 6월 18일 7면)와 관련, 경찰이 관련 혐의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광주 북구의원들의 밀어주기 수의계약 의혹 및 지인 회사 영업 알선 행위들과 관련,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 의원과 관련된 서류와 공

문 등을 복구에 요구해 요청해오는 상태로, 향후 경찰의 처벌 수위를 놓고 주목된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특혜, 비리 혐의가 포착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광주 시·구 선거관리위원회도 서구 의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서구의회 강기석(무소속·선거구) 의장은 최근 서구의회가 예산으로 구입한 홍보 기념품 대부분을 제 것인양 나눠준 것이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개> \*QR코드: 법원경매정보 앱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9타경 10146	1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1029 373㎡	대	101,917,5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9타경9924[중복]
	2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134 42.6㎡ 부속건물 포함 13.9㎡ 제시외 6㎡	단독주택	101,917,500	
2019타경 10122 [중복]	1	여수시 남면 삼정리 66 202㎡ 제시외 50.3㎡ [공유자문정속지분2분의1]	대	16,605,65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함
	2	동소 66 52.5㎡ [공유자문정속지분2분의1]	단독주택	16,605,650	
2019타경 57701	1	광양시 광성로70, 212동 11층 1107호 [중소] 동, 성호2차아파트] 59.79㎡	아파트	74,000,000	
	2	순천시 장성배기길63, 205동 15층 1508호 [조례동, 중흥아파트] 59.97㎡	아파트	114,000,000	
2019타경 57763	1	순천시 신월리길51, 404동 1층 101호 [조례동, 조례주공4단지아파트] 41.85㎡	아파트	54,000,000	
	2	순천시 도장길50, 202동 5층 504호 [연향동, 흥반리전세빌] 82,601㎡	아파트	180,000,000	
2019타경 817	1	순천시 이수로250, 2동 222호 44.43㎡	아파트	46,000,000	
	2	광양시 공영로10, 101동 7층 704호 [중소] 광광1차아파트] 59.995㎡	아파트	100,000,000	
2019타경 50379	1	여수시 삼암로16, 102동 2층 203호 [둔덕동, 라운아파트] 71,2201㎡	아파트	213,000,000	
	2	여수시 쌍봉로215, 210동 5층 501호 39.63㎡ [공유자문정속지분5분의1]	아파트	22,200,000	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함
2019타경 51211	1	순천시 왕지3길60, 106동 15층 1503호 [왕지동, 순천천지동대캐슬아파트] 128.777㎡	아파트	487,000,000	
	2	순천시 왕지3길60, 106동 15층 1503호 [왕지동, 순천천지동대캐슬아파트] 128.777㎡	아파트	487,000,000	
2019타경 10146	1	순천시 낙안면 상송리 345 6482㎡ 제시외 45㎡	유연지	2,250,634,78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목록4수
	2	순천시 낙안면 상송리 345 6482㎡ 제시외 45㎡	유연지	2,250,634,78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목록4수
2019타경 10122 [중복]	1	순천시 낙안면 상송리 87 371.5㎡	단독주택		
	2	동소 87 나동 132.3㎡	단독주택		
2019타경 55514	1	순천시 상산로81, 상가105동 1층 113호 [용달동, 용달동아파트] 14.58㎡	구린시설	14,900,000	
	2	순천시 좌수영로 454 주차장 1층84.46㎡ [순천시 상산로81, 상가105동 1층 113호] 14.58㎡	소매점, 단독주택	300,500,48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9타경 57930	1	여수시 둔덕동 503-10 147.7㎡	대	300,500,48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	여수시 둔덕동 503-10 147.7㎡	대	300,500,48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9타경 9696	1	여수시 국동 202-6 153㎡ [공유자집해속지분65분의13전부]	대	11,731,0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함
	2	여수시 신월로652-10 45.42㎡ [공유자집해속지분13/65전부] 제시외 화정실 등 4.14㎡	단독주택	11,731,000	

**[자동차, 중기]**

2020타경 1773	1	사용면허지: 순천시 하회면 인덕로 76 동택면호: 86타2403 차형: 케이에이치2.4터너블 크레인 연식: 2011	건설기계	50,000,000	보관: 순천시서면 알곡리2568-1, 순천자동차대매상사
-------------	---	--	------	------------	--------------------------------

2020. 6.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송기철